

# 빚투·영끌 폭증에 가계빚 ‘눈덩이’... 1700兆 ‘사상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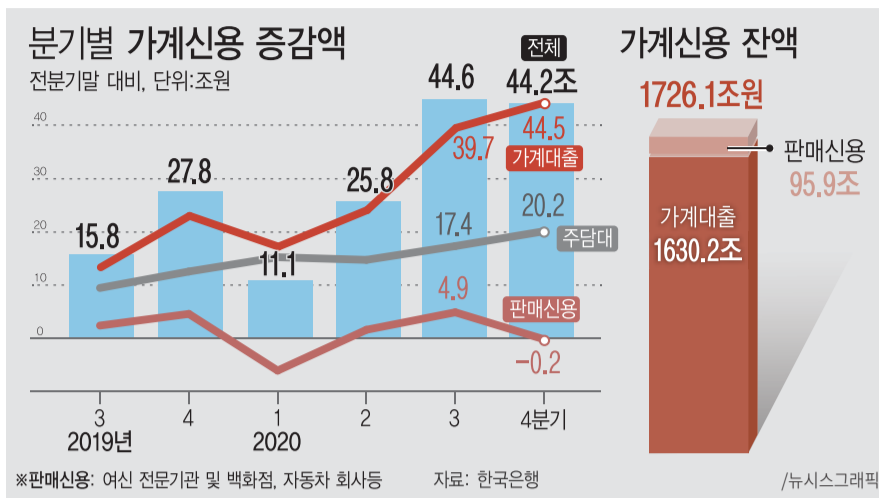
지난해말 기준 가계빚 1726.1조원  
작년 125.8조 늘어... 증가폭 확대  
주담대 67.8조, 전년보다 두 배↑  
신용대출 증가폭은 ‘사상 최대치’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들쭉이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결과로 해석된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으로 보면 작년 125조8000억원(7.9%)이 늘어 2019년 63조6000억원 대비 2배나 확대됐다. 지난 2016년 139조4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 잔액을 더한 수치다. 지난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로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700조원대로 올라섰다.

가계신용 증가세를 이끈 것은 가계대



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는 기타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630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44조5000억원이 늘었다. 분기 증가폭 기준으로는 지난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25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7년 1분기(127조5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연간 67조8000억원 늘어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두 배 가

량 확대됐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작년 57조8000억원이나 늘어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전분기 대비 예금은행이 28조900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6조6000억원, 기타금융기관 등에서 8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은행은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주택·주식자금 수요 등으로 기타대출도 전분기에 이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170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뉴시스

이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도 확대됐다. 기타금융기관은 여신전문회사 등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기준금리를 지난해 3월 0.5%포인트 낮추는 ‘빅컷’(1.25%→0.75%)을 단행한데 이어 5월에는 0.25%포인트의 추가 인하(0.75%→0.5%)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지만 가계부채 증가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이날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및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에도 한층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신용 잔액은 9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000억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분기(-6조1000억원) 이후 3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증권사 “빚투 이제 그만” 신용공여 중단 잇따라

개인투자자 빚투 22조 돌파  
증권사, 대출 빚장 걸어잡기  
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 전망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공여 잔고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장에 진입하면서 레버리지(차입) 투자심리가 강해져 ‘빚투(빚내서 투자)’ 행렬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증시 조정장이 지속될 경우 신용공여 급증에 따른 변동성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22조2233억원(코스피 12조174억원·코스닥 10조2058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신용공여 잔고는 지난달 7일(20조1223억원)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21조2826억원)에는 21조원을 넘겼다. 이후 지난 10일 21조6354억원을 시작으로 다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KTB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신규 신용공여대출을 일시중단하거나 중단 가능성이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신용공여 잔고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2018년 11조1205억원이었던 일평균 신용거래용자는 2019년 9조6788억원으로 잠시 줄었지만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13조1465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초 9조~10조원대로 시작했던 신용거래용자는 증시가 부진했던 3~4월 6조~7조원대에 머물다가 증시 회복세와 맞물려 12월24일

19조4536억원까지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신용용자가 늘어난 것이 상승장에서의 투자심리 극대화에 기인한 데 반해, 현재는 변동성 장세에서의 차익실현 목적이 크다는 점이 다른 점으로 해석된다.

반면 코스피는 ‘빚투’ 열기와 반대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3208.99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3000~3100선을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심화된 모습이다. 코스닥도 1월25일 999.30까지 올랐으나 이후 980~960선의 큰 변동 폭을 보이다가 지난 23일 937.67까지 떨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과열 부담이 커진 만큼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 전망이 많다. 아울러 신용공여 잔고가 증가한 상황여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금리 상승은 밸류에이션 부담 가중과 성장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이어진다”며 “특히 경제 지표 부진으로 금리 하락 시 글로벌 증시는 더 불안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증시 대비 단기 과열과 밸류에이션(가치 대비 주가) 부담이 남아 있는 코스피의 상대적 부진도 지속될 것”이라며 “증시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면 종목별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며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이 조정 폭과 매물 폭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조정장에서 가치주나 중소형주의 재평가 의견이 일부 나오지만, 자칫 무리한 투자전략 변경이 위험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협재민 기자 yji1208@

## 5분 충전으로 100km ‘쌍쌍’... 안전·편의성 UP

>> 1번 ‘정의선의 전기차’서 계속

1회 충전으로 430km 주행 가능  
가격 5000만원대 초반부터

아이오닉 5의 전면은 좌우로 길게 위치한 얇은 전조등이 인상적이며 현대차 최초로 상단부 전체를 감싸는 클램셸 후드를 적용해 면과 면이 만나 선으로 나뉘지는 파팅 라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유려하면서도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완성했다. 측면의 경우 포니를 연상시키는 실루엣을 바탕으로 직선으로 곧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동급 최장인 3000mm의 축간거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후면은 좌우로 길게 이어진 얇은 후미등을 적용해 전면과 통일성을 강조했다며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실내 공간은 생활과 이동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담았다.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가능한 플랫폼 플로어와 한눈에 봐도 긴 축간거리로 여유로운 탑승자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실내 이동 편의성이 향상됐다. 또 내연기관차의 엔진룸 자리에 마련한 앞쪽 트렁크와 2열 전동 시트의 이동을 이용해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트렁크 등을 통해 실용적인 적재 공간을 갖췄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주행성과 강화된 충돌 안전성도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0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410~430km(국내 인증 방식으로 측정된 당사 연구소 결과)이며,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현대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 실내.

80% 충전과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에 기본 탑재되는 모터는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이며 트림에 따라 전륜 모터를 추가해 사륜 구동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또 배터리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하단 배터리 보호구간에 알루미늄 보강재를 적용하고 배터리 전방과 주변부에 핫스팟핑 부재를 보강해 충돌 안전성을 높였다.

또 아이오닉5는 편리한 충전과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탑재했다. 아이오닉5는 다양한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 아이오닉5는 능동 안전 기반의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해 차량 내·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5를 통해 처음 선보이는 혁신 기술은 ‘V2L(Vehicle to Load)’로, 차량에서 외부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 V

2L 시스템의 3.5kW 고전력을 활용해 캠핑장에서 대형 전기 오븐에 찐빵조를 굽거나, 트레드밀을 연결해 운동을 하는 광고 영상을 선보인 바 있다.

토마스 슈미에라 현대차 고객경험본부장은 “혁신적인 실내공간과 첨단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현대차 최초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소개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아이오닉 5로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해 전기차에 대한 고객 경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3월 말 유럽 시장에 아이오닉5를 먼저 출시하고, 국내에는 4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를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정한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5 출시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기아 ‘CV(프로젝트명)’, 연내 제네시스 ‘JW(프로젝트명)’ 등 E-GMP 기반 전기차를 잇달아 공개할 계획이다.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은 25일부터 롱레인지 모델 2개 트림으로 진행하며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000만원대 초반, 프레스티지가 5000만원대 중반이다. /양성운 기자 ysw@